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길을 안내하는 구름 / 함께하는 하나님

한줄요약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분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도입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롤 모델의 모든 것을 닮고 싶어 따로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 행동패턴까지 따라하려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롤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거죠.

그 과정은 본래의 모습과 180도 달라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을 발견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는데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나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합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요?

1) 길을 안내하는 구름

오늘 본문은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이 그저 갈 곳 없어 이곳 저곳 방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기 위해 현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 삼기로 한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죄로 물든 자신의 생각과 습성으로 살아가는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직접 보이시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추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들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주신다는 보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그저 보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 함께하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셨지만 현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때의 이스라엘처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나타내시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그저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믿으며 순종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출처: 두란노 HOW주석 04_민수기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WBC 성경주석 05 민수기 04 민수기_100주년 주석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실 /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줄요약

믿음은 우리가 당면한 실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입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최단거리는 약 200km입니다. 걸어간다면 약 1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단거리로 간다면 필히 블레셋과 마주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옳은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죠.

1)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보고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자신들이 메뚜기로 보일 만큼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여정 중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마다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 이들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원망의 강도를 점점 높여더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해결해주셨지만 그것도 이제 10번째였습니다.

2)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지게 하려 하셨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새 민족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묵과하시진 않았습니다.

정탐 후 악평한 그들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은 광야에서 40년동안 지내게 되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 그들을 위해 최선을 보이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하시고 그들의 훈련되었을 쯤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싸우길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하며 반역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백성들은 회개하며 가나안으로 올라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갔다 그들에게 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믿음이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렙의 “이길 수 있다.”는 발언은 결코 맹목적인 낙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로보았을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당면한 실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처: 두란노 HOW주석 04_민수기_어떻게 설교할 것인가_두란노아카데미, WBC 성경주석 05 민수기 04 민수기_100주년 주석, 엑스포지멘터리 민수기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망 / 들리신 예수님

한줄요약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입

인터넷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도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가데스에서의 불평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가 어느정도인지 경험을 통해 알았지만 그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다시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1) 이스라엘의 원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승리를 호르마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닌 광야로 우회한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제까지의 불평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직접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 이들에게 고통과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거나 심판을 받는다면 백성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번엔 백성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장대 높이 뱀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그냥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건을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뱀뱀이 아니더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수 있으신데 왜 뱀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을까요?

2) 들리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뱀의 독이 뱀으로 만든 뱀을 본다고 나올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

다. 이 사건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손쓸 수 없어 죽어가는 그들이나 현재 죄로 인해 손쓸 수 없이 죽어가는 우리와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구원해주셨듯 현재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로 인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25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뱀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자기

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뱀뱀은 불뱀에게 물린 상처에 물리적 회복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영구적으로 치유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의 고민 /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한줄요약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입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유능하고 신뢰하는 리더를 따라가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이나게 합니다.
그러니 리더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모세의 고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됩니다.

이미 모세는 맛사 브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이 생각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 간청합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위임받은 자리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울 것을 간청했던 겁니다.

2)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여호수아를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모든 사명을 인수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후대의 지도자들처럼 위임받은 자리지만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올바르고 평안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위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던 지위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욕심 또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또는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아도 아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것만큼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